

거짓말 같은 시간

Scene 1.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밤.

야외극장이 옆에서 보인다. 무성 흑백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영화 보는 정민과 지영. 야외극장 화면에 The end가 떠 있다. 정민과 지영은 영화 여운을 느끼며 앉아있다.

정민

옛날 영화대 볼만하네.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며) 오늘 데이트 괜찮지 않았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짠 거야.*

지영

(살짝 미소 짓다 이내 냉랭한 표정으로) 우리 헤어지자.

정민

뭐?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정민과 지영의 뒷모습. 야외극장 화면에 the end가 떠 있다. 사라진다. 타이틀이 뜬다. 거짓말 같은 시간.

Scene 2. APEC 나루 공원. 낮.

테이블에서 가사를 쓰는 정민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맥북과 헤드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보인다. 단어를 썼다 지웠다 하는 정민. 한숨 쉬며 좌절하는 정민. 메모장과 펜을 옆에 내려놓고 엎드린다. 커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테이블에 엎드려 웅크리는 정민. 정민의 멍한 표정.

Scene 3. 식당. 낮.

브레이크 타임 팻말이 보인다. 식당 사장이 포스기를 바라보고 있다. 해마다 떨어지는 매출. 어두워지는 식당 사장의 표정. 문이 열리는 소리.

식당 사장

아, 알바 때문에 오셨죠?

정민

네. 안녕하세요. 최정민이라 합니다.

식당 사장이 정민을 조금 냉담하게 바라본다.

식당 사장

혹시 나이가?

정민

(굳은 표정으로) 서른입니다.

식당 사장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다 20대 초반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는 식당 사장. 정민이 돌아선다. 돌아선 정민의 고개가 숙여 있고 어깨가 축 처져있다. 이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정민.

Scene 4.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밤.

지영을 노려보는 정민. 미안하지만 지영도 지지 않으려고 정민을 노려본다.

정민

말해봐. 이유가 뭔데?

지영

....

정민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지영

우리도 이제 서른이야. 현실을 생각해야 해.

정민
...그게 이유냐?

Scene 5. 면접실. 낮.

켜진 프로젝터가 보인다. 일정표가 있는 ppt 화면. '마치며'가 있는 ppt 화면.

정민
지금까지 저의 생애 첫 창작 지원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위원 1
솔직한 발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다만 지원 신청하신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음악. 계속하실 건가요?

정민
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많이 음악으로 저를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심사 위원 1. 뭔가 말할 것이 있냐는 듯, 심사위원 2를 쳐다본다. 심사 위원 2가 정민의 자료를 보고 있다.

심사 위원 2
이 발표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가 좀 그렇네요.
(웃으며) 세상에 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뭐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던가,
'지역 인디 음악 활성화를 위해서'던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심사 위원 1, 3이 살짝 웃는다. 정민의 표정이 어리둥절하다.

정민
그건 제가 이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위원 2
알겠습니다.

(심사 위원 2가 심사 위원 3을 바라보며) 뭐 질문 있으세요?

심사 위원 3이 고개를 흔든다.

심사 위원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려다 발표장을 빠져나가는 정민.

Scene 6. 복도. 낮.

정민의 화가 난 발걸음. 복도 벽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강좌 포스터가 보인다.
정민이 화가 난 채 성큼성큼 걷는다. 멈춰서는 정민.

정민
(좌절하며 약하게) 아. 씨발.

Scene 7. 카페 앞. 낮.

정민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카페로 들어간다. 잠시 뒤 정민이 카페에서 나온다.

Scene 8. 도서관. 낮.

도서관이 내려다 보인다. 정민이 공부하고 있다. 집중하려고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는 정민. 피곤한 정민의 표정.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정민.

Scene 9. 밴드 연습실. 낮.

멤버들이 만든 노래의 후주가 끝난다.

지훈
좋은데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현우
저도 좋아요.

영지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볼게요.

미옥
저도 마음에 들어요.
또 우리 멤버 간 호흡이 좋아서 노래가 잘 나온 듯해요.

지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지훈
맞아요. 이렇게 합이 좋은 거 흔한 일 아닙니다.

영지
우리 녹음은 언제 합니까?

정민
음……. 조만간 날짜 잡아볼게요.

고민에 빠진 정민. 미옥이 정민의 표정을 살핀다.

미옥
힘들면 혼자 부담 갖지 말고, 멤버들한테 이야기해요.

정민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훈
아니. 뭐 노래 대박 나면 혼자 다 독식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같이 저작권료 좀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서 해요.

현우
....그러면 저도 보태고 싶어요.

웃는 사람들.

정민

고맙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정말 안 될 거 같으면 그때 부탁할게.

정민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Scene 10. 바닷가. 낮.

바다 풍경과 정민의 뒷모습. 밝은 정민의 표정.

Scene 11.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밤.

전당 빅루프

지영

모든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니 마음대로 살 때는 이제 지났어.

정민

나는 내 맘대로 살 건데?

지영

휴. 이제 그만하자. 갈게.

잘 살아.

지영이 일어나서 자리를 뜬다. 정민이 그런 지영을 원망 어린 표정으로 쳐다본다.

Scene 12. 바닷가. 낮.

다시 표정이 우울해지는 정민. 그때 울리는 문자 소리. 문자를 확인하고 놀라는 정민.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문자. 바다 풍경과 정민의 뒷모습. 밝은 음악이 들려온다.

Scene 13. 녹음실. 낮.

정민의 보컬 녹음이 이루어진다. 진지하게 완성된 노래를 듣는 멤버들.

Scene 14.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낮.

객석에 앉아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정민.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본다.

Scene 15. 거리. 밤.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이 어느 가게의 야외 스피커에서 들린다. 걸어가는 지영. 뒤이어 정민이 따라가다 멈춘다. 정민과 점점 멀어지는 지영.

정민
야. 이지영!

지영이 멈춘다.

정민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을 생각해 봐.
너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멈춘 지영. 지영의 어깨가 조금 들쭉인다. 눈물을 닦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걸어가는 지영. 걱정스럽게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민.

Scene 16.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낮.

정민이 문자를 보낸다.

'나 공연해. 니가 보러 왔으면 좋겠어.'

Scene 17. 달맞이 어울마당 야외 공연장. 낮.

공연장에 정민과 멤버들이 보인다.

정민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정민 밴드입니다.
노래 들어보시고 좋으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이
ㄴㄴ

verse 1

처음엔 우리
ㄴㄴ

여이이 뭘 거라고
ㄴㄴ

저여 상상하지 못했어
ㄴㄴ

스쳐든 눈인사
ㄴㄴ

하며 지나갈 때
ㄴㄴ

가끔 다르게 보일 때는 잊어지
ㄴㄴ

verse 2

하지만 반복된 우연에
ㄴㄴ

우리 가까워졌고
ㄴㄴ

마음속에 적적히
ㄴㄴ

스며든 서로의 존재
ㄴㄴ

이제는 추억
ㄴㄴ

아나들 더해주면서
ㄴㄴ

그 누구보다 기억하는데
ㄴㄴ

chorus 1

민경은 여사이라 꿈속에서
ㄴㄴ

난 니를 숨기 채 살아가지만
ㄴㄴ

어제나 내가 내 모습
ㄴㄴ

지킬 수 있게 날 감싸주는 그대
ㄴㄴ

verse 3

아때는 사소한 이유로
ㄴㄴ

우리 멀어졌고
ㄴㄴ

자조심에 적적히
ㄴㄴ

다투던 날도 잊어지
ㄴㄴ

하지만 이제
ㄴㄴ

행복하 미련 끊으며
ㄴㄴ

다들까지도 소중애하는 데

chorus 1

헝겊은 연실이란 꿈속에서
난 나를 숨기 제 살아가지만
언제나 내가 네 모습
지킬 수 있게 날 감싸주는 그대
나의 연인이야

d bridge

늘 지금처럼 곁에 있어 줘
내 편이 돼 준 모습 그대로

chorus 2

사랑에 너만을 사랑해
나의 모든 너에게 줄 거야
날 세상에서 항상 지켜준
그대 나의 연인이야
그대 나의 연인이야

노래가 끝난다. 몇몇 관객의 박수.

정민
감사합니다.

정민 뒤로 해가 보인다.

Scene 18. 공연장 밖. 밤.

미옥, 지훈, 영지, 현우가 문 잠그는 소리를 들으며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민이 다가온다. 정민의 뒷모습.

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영지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현우
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어요.

정민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정민
네. 또 만들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좀 쉬어요.

불쑥 정민 뒤로 지영이 다가온다. 놀라는 멤버들. 정민도 뒤를 돌아본다.
지영이 꽃을 들고 정민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는다. 정민의 알 수 없는 표정.

Scene 19.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밤.

야외극장에서 마주 보고 서 있는 정민과 지영. 정민이 지영에게 받은 꽃을 들고 있다.

지영
어떻게 지냈어?

정민
그냥. 뭐 보시다시피 노래 만들고, 뭐 조금 어려운 자격증도 하나 땀어.
그거 덕분에 파트 타임으로 일할 것 같아.

지영
위험한 일 아냐?

정민
뭐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할 만해~.

지영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시간을 두고) 노래 좋더라.

정민

그래. 고마워.

지영

근데 그 노래. 누구 생각하면서 쓴 거야?

정민

(정민이 지영이 안 보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무음으로) 와~

다시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는 정민

정민

누구겠냐? 너는 누구였으면 좋겠는데?

미소 짓는 지영.

지영

오늘 니가 노래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고 멋져 보였어.

또 니가 원하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느낌도 들었어.

쉽지는 않겠지만,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니 노래를 듣고 싶어졌어.

염치없긴 하지만, 다시 나 받아 주면 안 될까?

정민의 화가 풀어진다. 살짝 정민 앞으로 다가오는 지영. 정민이 다가가서 지영에게 키스. 그 모습이 야외극장 화면 안에 담긴다.